

1. 다음 중 ()안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 서류는 아직 ()를 받지 못 하였다
시위대와 경찰이 ()했다.
그 사람은 재산 ()혐의로 고발 당했다.

- ① 결재(決裁), 추돌(追突), 은둔(隱遁)
- ② 결재(決裁), 충돌(衝突), 은닉(隱匿)
- ③ 결제(決濟), 추돌(追突), 은둔(隱遁)
- ④ 결제(結濟), 충돌(衝突), 은닉(隱匿)

[정답] ②

[해설]

- 결재(決裁) : 부하 직원이 제출한 안건을 허락하거나 승인함.
- 결제(決濟) : 처결 또는 거래 관계를 끝맺음.
- 충돌(衝突) : 의견이나 이해가 맞지 아니하여 서로 맞서거나 맞부딪침.
- 추돌(追突) : 기차나 자동차 따위가 뒤에서 들이받음.
- 은닉(隱匿) : 남은 물건이나 범죄인을 몰래 숨기거나 감춤.
- 은둔(隱遁) : 세상일을 피하여 숨어 삼.

■ 이장우 한마당 국어 기본서 P. 62, 237 / 보충프린트

2. 다음 중 발음 과정에 나타난 음운 변동 규칙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신라[실라] ㉡ 해돋이[해도지]

- | | |
|--------|------|
| ㉠ | ㉡ |
| ① 유음화 | 구개음화 |
| ② 구개음화 | 유음화 |
| ③ ㄴ 첨가 | 구개음화 |
| ④ ㄴ 첨가 | ㄹ 탈락 |

[정답] ①

■ 정답 및 해설 : ①

- ㉠ 유음화 : 'ㄹ'의 앞이나 뒤에 오는 'ㄴ'은 [ㄹ]로 발음한다.
- ㉡ 구개음화 : 'ㄷ, ㅌ'의 뒤에 'ㅣ' 모음이 결합되는 경우는 [ㅊ, ㅌ]으로 발음하고, 받침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 이장우 한마당 국어 기본서, P. 45

3. 다음 중 지문과 입장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학교 생활 기록부에 대한 지문

- ① 기록함으로써 경각심을 키워야 한다.
- ② 한 번의 실수로 지나친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

- ③ 상과 벌에 대한 기록이 될 수 있다.
- ④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 학교 생활 기록부에 대한 지문 한 번의 실수로 지나친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

4. 다음 중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 ① 울산 - Ulsan
- ② 설악 - Seorak
- ③ 종로 - Jongno
- ③ 호법 - Hobeob

[정답] ④

[해설]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ㄱ, ㄷ, ㅂ'은 모음 앞(첫소리)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끝소리)에서는 'k, t, p'로 적는다. 따라서 '호법'은 'Hobeop'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

■ 이장우 한마당 국어 기본서 P. 148

5. 다음 중 가전체 문학 작품과 의인화된 사물을 짝지은 것 중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① 국순전 - 술
- ② 공방전 - 엽전
- ③ 저생전 - 돼지
- ④ 정시자전 - 지팡이

[정답] ④

[해설] 가전체 문학은 사물이나 동물을 의인화하여 '계세징인(戒世懲人)'을 목적으로 쓰인 소설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작품의 갈래 중 하나이다. '저생전'은 '종이'를 의인화하여 문인으로서의 도리를 서술하여 당시 유생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 '이첨'의 작품이다.

- 국순전 : 술을 의인화한 '임춘'의 작품. 특히 술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인간(간사한 벼슬아치)의 타락을 경계한 작품.
- 공방전 : 엽전(돈)을 의인화한 '임춘'의 작품. 돈의 부작용(폐해)을 부각하여 돈(재화)을 탐하는 세태를 비판한 작품.
- 정시자전 : 지팡이를 의인화한 '식영암'의 작품. 인재를 외면하고 득세하려는 한신한 세상을 풍자하고 사람은 자신을 깨닫고 도(道)를 행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작품.

■ 이장우 한마당 국어 기본서 P. 971

6. 다음 중 음운의 개수가 가장 많은 단어를 고르시오.

- ① 소화기 ② 인화성
- ③ 안전모 ④ 방열복

[정답] ④

[해설]

•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최소 단위로, 자음(19개), 모음(21개)을 말한다. 단 첫소리에 오는 'ㅇ'은 음가가 없으므로 음운으로 보지 않으며, 겹받침(ㄱ, ㄴ, ㄷ, ㄹ, ㅂ, ㅅ 등)은 음가가 하나이므로 하나의 음운으로 본다.

- ① 소화기 → 6개(ㅅ+ㅇ+ㅊ+ㅊ+ㅊ+ㅇ+ㅣ)
- ② 인화성 → 7개(ㅣ+ㄴ+ㅎ+ㅊ+ㅊ+ㅅ+ㅣ+ㅇ)
- ③ 안전모 → 7개(ㅏ+ㄴ+ㄷ+ㅈ+ㅣ+ㄴ+ㅇ+ㅊ)
- ④ 방열복 → 8개(ㅂ+ㅏ+ㅇ+ㅇ+ㅣ+ㄹ+ㅂ+ㅊ+ㅇ)

■ 이장우 한마당 국어 기본서, P. 346

7. 다음 보기 중 어법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 ① 소녀가 할머니에게 선물을 드렸다. - '드렸다'는 주체 높임법이다.
- ② 선생님은 딸이 계시다. - '계시다'에서 '있으시다'로 바꾼다.
- ③ 기한이 되시면 맞춰 주세요. - '되시면'을 '되면'으로 바꾼다.
- ④ 저희 나라는 아름다운 강산입니다. - '저희 나라'를 '우리나라'로 바꾼다.

[정답] ①

[해설]

- ① '드리다, 모시다, 뵙다, 받잡다, 여쭙다' 등의 서술어를 사용하여 제3자(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여주는 높임법은 객체 높임법이다. 주체 높임법은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의 행위의 주체가 일치할 때, 주체(주어) 자체를 높여 주는 높임법이다.
- ②, ③은 높임의 대상이윗사람이 아닌 윗사람과 관련되는 것(신체 부위, 소유물 등)일 때는 직접 높임(계시다, 편찮으시다 등)을 사용하지 않고, 간접 높임(있으시다, 아프시다 등)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간접 높임=낮춤+시의 형식)
- ④ 국가, 겨레는 절대적인 대상이므로 낮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이장우 한마당 국어 기본서, P. 104

8. 다음 보기를 읽고 설명이 가리키는 것을 고르시오.

[복원미흡] 지문

- ① 비석치기 ② 연날리기
- ③ 고무줄놀이 ④ 딱지치기

[정답] ②

[해설] 복원미흡

9. 지문 내용 중 밑줄 친 것을 수정한 것으로 옳은 것은?

[복원미흡]

- ① 한해 ② 바람
- ③ 년초 ④ 할 지

[정답] ②

[해설]

10. 다음 보기 안에 밑줄 친 의미와 다른 한자성어를 고르시오.

지문의 밑줄은 재난은 발생한 뒤 수습하기가 어렵다는 내용

- ① 실마치구(失馬治厰)
- ② 연목구어(緣木求魚)
- ③ 망양보리(亡羊補牢)
- ④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정답] ②

[해설]

- ②는 불가능함, ①, ③, ④는 때 늦음, 어리석음을 뜻하는 말
- ① 실마치구(失馬治厰) - 말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로 실패한 뒤에 손을 쓴다는 뜻.
- ② 연목구어(緣木求魚) -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한다는 말로,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한다는 뜻.
- ③ 망양보리(亡羊補牢) - 양 잃고 우리를 고친다는 말로, 어떤 일을 실패한 뒤에 후회해도 소용없음을 뜻하는 말.
- ④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 사람이 죽은 후에 약을 구한다는 말로, 때가 지난 후에 대책을 세운다는 뜻.

■ 이장우 한마당 국어 기본서, P. 247/253

11. 다음 보기의 빈 칸에 알맞은 것은?

덕 들에 동난지이 사오. 저 장스야, 네 황후 괴 무서시라 왜논다, 사자.
 外骨內肉(외골내육), 兩目(양목)이 上天(상천), 前行後行(전행후행), 小(소)아리 八足(팔족), 大(대)아리 二足(이족), 淸醬(청장) 으스스하논 동난지이 사오.
 장스야, 하 거북이 웨지 말고 []젼이라 흐렴은

- ① 게 ② 거북이
- ③ 자라 ④ 문어

[정답] ①

[해설]

작가 미상의 사설시조로 현학적인 양반(한학자)들의 허장성세(虛張聲勢)를 풍자한 작품이다. 여러 사람들이여 동난젓 사오. 저 장수야 네 물건 그 무엇이라 외치느냐, 사자. 밝은 단단하고 안은 물렁하며 두 눈은 위로 솟아 하늘을 향하고, 앞뒤로 기는 작은 발 여덟 개, 큰 발 두 개, 푸른 장이 아스스하는 동난젓 사오. 장수야 너무 거북하게 말하지 말고 게젓이라 하려무나.

■ 이장우 한마당 국어 기본서, P. 849

12. 수사 의문문이 아닌 것은?

- ① 이 고장 특산물이 무엇인가요?
- ② 내가 널 못 당할쏘냐?
- ③ 이 사무실 공기가 좀 탁하지 않니?
- ④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할 일이 없을쏘냐?

[정답] ①

[해설] 수사 의문문이란 물음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긍정적 진술을 내포하고 있는 의문문이다. 말의 끝을 내리거나 온점을 찍어 표현하기도 한다. ①은 고장의 특산물을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 '설명문의문'이다.

■ 이장우 한마당 국어 기본서, P. 152

13. 다음 시를 읽고 알맞은 내용을 고르시오.

맞벌이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 씨
 일곱 달 된 아기엄마 구자명 씨는
 출근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서 즐기 시작한다.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없이
 옆으로 앞으로 꾸벅꾸벅 존다
 차창 밖으론 사계절이 흐르고
 진달래 피고 밤꽃 흐드러져도 꼭
 부처님처럼 즐기고 있는 구자명 씨
 그래 저 십 분은
 간밤 아기에게 젖물린 시간이고
 또 저 십 분은
 간밤 시어머니 약시중 든 시간이고
 그래그래 저 십 분은
 새벽녘 만취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하여 버린 시간
 일 거야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잠속에 흔들리는 팬지꽃 아픔
 식탁에 놓인 안개꽃 명에
 그러나 부엌문이 여닫기는 지붕마다

여자가 받쳐든 한 식구의 안식이
 아무도 모르게
 죽음의 잠을 향하여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
 - 고정희 '우리 동네 구자명씨'

- ① 화자의 고통스러운 삶을 그리고 있다.
- ② 부조리한 상황을 말하고 있다.
- ③ 대상의 어리석음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 ④ 배경 묘사를 통해 화자의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정답] ②

[해설]

• 이 시는 출근 버스 안에서 즐기고 있는 구자명 씨를 보며, 현대 사회의 여성의 모습을 통해 희생을 강요당하는 여성들의 고달픈 삶을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죽음의 잠을 향하여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는 구절을 통해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이 사회 전반적으로 뿌리박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14. 다음 보기의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千世(천 세) 우회 미리 定(정)호산 漢水(한수) 北(북)에, 累仁開國(누인개국)호샤 卜年(복년)이 罔(없)업스시니, 聖神(성신)이 니스샤도 敬天勤民(경천근민)호샤샤, 더욱 구드시리이다. 님금하, 아르쇼셔. 落水(낙수)에 山行(산행)가 이셔 하나빌 미드니잇가.

- ① '미리 定(정)호산'은 하늘이 미리 정했다는 내용이다.
- ② 현재 사용하지 않는 자음과 모음이 사용되었다.
- ③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였다.
- ④ 산행은 '등산'이라는 의미이다.

[정답] ④

[해설] 조상의 어진 덕으로 개국한 총결사(總結詞)에 해당된다. 조상의 어진 덕으로 개국한 나라의 운명은 영원하리라는 국운(國運)의 송축에 이어, 왕조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는 후대 왕들은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 다스리는 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하(夏)나라 태강왕(太康王)의 고사를 인용하여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도록 권계(勸戒)하고 있다.

[전문 해석]

천년 전부터 미리 정하신 한양에, 어진 덕을 쌓아 나라를 여시어, 나라의 운명이 끝이 없으시니. 성스러운 임금이 이으시어도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부지런히 돌보셔야 더욱 굳으실 것입니다. 임금이시여, 아소서. 낙수에 사냥 가 있으며 할아버지를 믿었습니까?

■ 이장우 한마당 국어 기본서, P. 897

15. 다음 지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푸른 산이 흰구름을 지니고 살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하늘을 향하고 산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나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짧은 산맥으로 삼고 부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나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거니……

- 신석정 <들길에 서서>

- ① 동일한 색채어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 ②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유사성을 말하고 있다.
- ③ 어조 변화를 통해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
- ④ 밝음과 어둠을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내포하고 있다.

[정답] ③

[해설] 이 시는 '굳센 삶의 의지와 이상 추구'를 노래한 신석정의 작품이다. 부정적 현실 상황(저문 들길, 슬픈 생활) 속에서도 산다는 것 자체에 기쁨을 느끼면서 긍정적 이상(푸른 하늘, 푸른 들, 푸른 별)을 꿈꾸며 사는 화자의 굳은 의지가 잘 나타나는 시이다. ③의 설명처럼 어조 변화에 따른 자기 반성(성찰)의 시는 아니다

■ 이장우 한마당 국어 기초편, P. 229

16. 다음을 읽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紅塵(홍진)에 못친 분네 이내 生涯(생애) 엇더하고.
 넷 사람 風流(풍류)를 미출가 못 미출가. 天地間(천지간) 男子(남자) 몸이 날만흔 이 하건만, 山林(산림)에 못쳐 이셔 至樂(지락)을 맛룰 것가. 數間茅屋(수간모옥)을 碧溪水(벽계수) 얹피 두고, 松竹(송죽) 鬱鬱裏(울울리)에 風月主人(풍월 주인) 되어서라. 엇그제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桃花杏花(도화행화) 夕陽裏(석양리)에 띄여 있고, 綠楊芳草(녹양 방초)는 細雨中(세우중)에 프르도다.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造化神功(조화신공)이 物物(물물)마다 현스롭다. 수풀에 우는 새는 春氣(춘기)를 못내 계워 소리마다 嬌態(교태)로다. 物我一體(물아 일체)어니, 興(흥)이이 다를소냐. 柴扉(시비)에 거러 보고, 亭子(정자)애 안자

보니, 逍遙吟詠(소요음영)하야, 山日(산일)이寂寂(적적)하니. 閑中眞味(한중진미)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 정극인 <상춘곡>

- ① (ㄱ) '홍진'과 '수간모옥'은 대조되는 뜻이다.
- ② (ㄴ) 지락에 대한 자부심을 설명하고 있다.
- ③ (ㄷ) 이내 생애는 화자의 지향대상이다.
- ④ (ㄹ) 넷사람의 생애를 감각적인 시어로 구체화하였다.

[정답] ④

[해설] 정극인의 '상춘곡'이다. 봄을 완상(玩賞)하고 인생을 즐기는 지극히 낙천적인 내용으로, 화자는 좁은 공간(수간모옥)에서 점점 넓은 공간(들판, 산위)으로 나아가는 공간 확장에 의한 전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조선 시대 사대부 가사의 첫 작품으로, 산림처사로서의 생활을 묘사한 은일 가사의 첫 작품으로 사림파 문학의 계기를 마련한 작품이기도 하다.

- ① 홍진-속세, 수간모옥-자연 속
- ② 봄을 완상하는 즐거움
- ③ 자연을 즐기는 풍류적 삶
- ④ 옛사람은 '옛성인들'로 여기서는 화자의 자연을 즐기는 삶을 강조하기 위해 끌어들인 대상에 불과하다.

[전문 해석]

속세에 묻혀 사는 사람들아, 이 나의 생활하는 모습이 어떠한가? 옛 사람의 운치 있는 생활을 내가 미칠까 못미칠까? 천지간 남자로 태어난 몸으로서 나와 같은 사람이 많건마는, 어찌하여 그들은 나처럼 산림에 묻혀 사는 자연의 지극한 즐거움을 모른단 말인가? 초가삼간을 맑은 시냇가 앞에 지어 놓고, 송죽이 울창한 속에 풍월 주인이 되어 있도다.(풍류 생활의 기상)/엇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복사꽃 살구꽃이 석양 속에 피어 있고, 푸른 버들 꽃다운 풀은 가랑비 속에 푸르도다. 조물주가 칼로 재단해 내었는가? 붓으로 그려 내었는가? 조물주의 신기한 재주가 사물마다 야단스럽다. 숲 속에 우는 새는 봄기운을 끝내 이기지 못하여 소리마다 아양을 떠는 모습이로다.

물아일체어니, 흥이야 다르겠는가? 사림문 주변을 걸어 보기도 하고, 정자에도 앉아 보며, 이리저리 거닐며 나직이 시를 읊조려, 산 속의 하루가 적적한데, 한가로움 속의 참다운 즐거움을 아는 이 없이 나 혼자로구나.(봄의 경치와 흥겨움)

■ 이장우 한마당 국어 기본서 P. 856

17. 다음 중 속담과 뜻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① 굽은 나무 선산 지킨다 - 쓸모 없는 것이 오히려 할 일을 한다.
- ② 못 먹는 버섯이 3월에 난다 - 좋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일찍 나돌아 다닌다.
- ③ 봄별은 며느리가 맞게 하고 가을별은 딸에게 맞게 한다 -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보다 더 예뻐한다.

